

부산시, 케냐 해양 콘퍼런스서 ‘스마트 양식’ 공약 발표

내년까지 국립부경대에 센터 조성
전통양식 산업, 데이터·AI 전환
질병 예측·생산 최적화 지원

부산시가 케냐 몼바사에서 열린 제11차 아워오션콘퍼런스(OOC)에서 스마트 양식 분야 신규 실천 공약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16~18일 콘퍼런스에 참가해 해양 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넓혔다고 밝혔다.

아워오션콘퍼런스는 해양을 단독 주제로 다루는 대표적인 국제회의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 비정부기구(NGO), 연구기관이 해양 현안을 논의하고 자발적 실천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로, 2014년 출범 이후 누적 공약이 2900건을 넘었다.

이번 11차 회의는 ‘우리의 바다, 우리의 유산,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아프리카 카대륙에서 처음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부산시 관계자들이 케냐 몼바사에서 열린 제11차 아워오션콘퍼런스(OOC)에 참가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과 어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동 선언인 ‘몼바사 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18일 본회의 ‘지속 가능한 수산업’ 세션에서 ‘스마트 양식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신규 공약으로 공식 발표했다

다. 전통 양식 산업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환해 질병 예측과 생산 최적화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센터는 2027년까지 국립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에 조성된다.

부산시는 이번 콘퍼런스 참가를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유치에 위한 중

장기 전략의 하나로 추진했다. 시는 지난해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회의 인프라, 정책 역량을 강조했다.

또 지난해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제3차 유엔해양총회에도 참가해 부산 개최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린 바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국제 해양 행사를 이어간다. 오는 9월 ‘동아시아해양 지방정부 네트워크(PNLG) 연례포럼’을 부산에서 개최해 아시아·태평양 연안도시와의 협력을 넓히고, 2027년에는 세계 항구도시협회(AIVP) 총회를 유치할 계획이다.

조영태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참가는 부산의 해양 정책과 실천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엔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협력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포항시 영일만항, 북극항로 추진 박차

포항시가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특화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포항시는 지난 22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에서 ‘포항영일만항 북극항로 특화항만 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경북도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 물류·항만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북극항로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에 대응해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산시 시군평가 시부 종합 1위

경산시가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6년 시군평가에서 시부 종합 1위에 올라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정량지표 480점 만점 중 475.4점을 획득해 99%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이는 경산시 역대 최고 성적이다. 수상에 따라 사업비 1억5000만원과 포상금 2000만원도 확보했다.

특히 장기간 달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9개 지표를 새롭게 달성하며 평가 결과를 끌어올렸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서비스 확대, 안전도시 조성, 환경 개선, 미래산업 육성 등 시정 전반의 정책 성과가 고르게 반영됐다. /경산(경북)=김진곤 기자

진주시 모바일 지역상품권 100억 발행

경남 진주시는 내달 1일부터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모바일 진주시사랑상품권’ 100억원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모바일 진주시사랑상품권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인별 구매 한도는 월 20만원이다. 상품권은 ‘제로페이 앱’에서 구매하면 된다. 관내 모바일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760억원 규모의 ‘진주시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에 270억원을 발행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490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 히든챔피언 신규기업 3곳 선정

부산시가 올해 ‘부산형 히든챔피언’ 신규 기업으로 테란, Mt.H콘트롤벨브, 푸드트레블 3개사를 선정했다.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지난 22일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이들 기업에 R&D·사업화·기술 고도화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산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성장 사다리 정책이다. 부산시는 그간 158개사를 육성해 왔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북도, 이차전지 제조현장 AX 확산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사업
에코프로비엠 등 5개 기업과 실증
차 부품, 반도체 등으로 확대 계획

경북도가 이차전지 제조현장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안전관리 솔루션을 검증하고 제조업 AI 전환(AX) 확산에 나선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추진한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사업’을 통해 에코프로비엠, 아이에스에코솔루션, 애플러스, 아비코, 피앤티 등 5개 기업과 제조현장 실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여 기업들은 AI 영상분석 기반 위험 감지와 화재 예방, 공정물류 무인화, 자율 이동로봇(AMR) 운영 최적화, 로봇 통합 관제 등 물리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안전성 향상 가능성을 확인했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에서 검증된 안전

관리, 공정물류 무인화, 로봇 통합관제 기술을 이차전지 산업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 반도체, 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공급기업 협력체계 구축과 후속 실증,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22일 경주 라한 셀렉트에서 ‘제조현장 물리인공지능 성과확산 포럼’을 열고 사업 성과와 AI 솔루션 실증 사례를 공유했다. 포럼에서는 자율제조 기술과 제조업 AI 활용 전략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토론도 진행됐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AI는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검증된 제조혁신 모델을 지역 기업에 확산해 제조업 AI 전환과 자율제조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현 기자 kih9@

“달빛 아래서 경기전 역사 체험하세요”

전주시, ‘왕과의 산책’ 운영
10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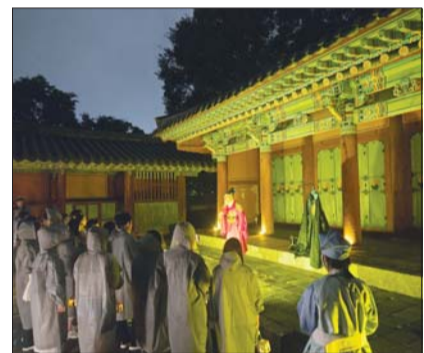
전북 전주시 대표 야간 문화콘텐츠인 경기전 역사 탐방 프로그램 ‘왕과의 산책’이 올해도 관광객들을 맞는다.

시는 10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전주 경기전에서 야간 역사 해설 프로그램 ‘왕과의 산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은 ‘왕과의 산책’은 역사와 공연, 해설을 결합한 관객 참여형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매년 높은 만족도와 함께 조기 매진을 기록하며 전주의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프로그램은 역사 고증을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배우 27명이 경기전 내 9개 주요 공간에 배치돼 경기전과 전주의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참가자들은 경기전 입구를 시작으로



전주시 대표 야간문화콘텐츠 경기전 역사 탐방 프로그램 ‘왕과의 산책’.

홍살문과 정전, 전주사고, 예종대왕태실 및 비, 조경묘, 부속채 등을 차례로 이동하며 역사 속 인물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체험하게 된다.

특히 단순한 경기전 해설을 넘어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온 전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서사 형식으로 풀어내 경기전의 역사적 가치와 전주의 도시 역사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주(전북)=조계철 기자 chonho89@

부산관광공사, 외국인 인플루언서와 홍보

‘글로벌 하이킹 메이트’와 협력
32개국 주한외국인 100명 선발

부산관광공사가 주한 외국인 인플루언서 100명과 손잡고 부산 관광 온라인 홍보에 나선다.

공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글로벌 하이킹 메이트(Global Hiking Mate)’와 협력해 부산 여행 콘텐츠 제작·확산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하이킹 메이트는 32개국에서 선발된 주한외국인 인플루언서 10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프로그램이다. 올해 2년 차를 맞았으며 참가자들의 SNS 팔로워 수 합계는 약 55만 명에 이른다.

주요 활동은 등산과 웰니스 관광, K컬처 등을 주제로 한국 여행 콘텐츠를 제작해 해외에 알리는 것이다. 지난 3월 7일 서울 북한산 인근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협업에서 참가자들은 7월부터

10월 사이 개별 자유여행 형태로 부산을 방문한다. 공사는 외국인 전용 관광패스인 ‘비즈니스패스’와 교통, 숙박 등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부산의 주요 관광지 and 콘텐츠를 직접 체험한 뒤 개인 SNS 채널에 관련 콘텐츠를 올리게 된다. 공사는 우수 콘텐츠와 우수 활동자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주요 홍보 콘텐츠로는 올해 3월 대한민국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 등 부산의 산악 관광 자원을 활용한 등산 콘텐츠가 포함된다. 금정산은 국내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하철역에서 도보 접근이 가능해 외국인 개별 여행자의 접근성이 높다.

이 밖에 공사가 선정한 부산 웰니스 관광지 17곳 방문, 미식과 야간 관광 체험도 함께 이뤄진다. 부산과 서울 간 철도·항공·시외버스 등 교통 이용 정보, 부산 지역 축제·이벤트와 연계한 여행 콘텐츠도 제작·공유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사천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전 돌입

민선 9기 핵심 현안으로 삼아
우주항공청 소재 ‘강점’

사천시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지역 유치를 민선 9기 핵심 현안으로 삼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 분야 산업 육성 전담 기관이다. 정책 개발, 사업 기획, 기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맡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진흥원 설립을 공식화했고, 올해 2월에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사천 외에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 인프라가 밀집한 대전,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이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3파전 양상이 형성된 상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점을 가장 큰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중심으로 설계부터 제작, 시험, 정비(MRO)까지 항공 우주 산업의 전주기 생태계가 갖춰져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시에 따르면 전국 우주항공산업 매출의 52.4%, 종사자의 45.4%가 사천에 집중돼 있다. 정책 수립 기관인 우주항공청과 산업 현장, 기업 지원 기능이 한 곳에 모여야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사천 측의 논리다.

사천시는 지난 2월부터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추진되는 이 서명운동은 참여 목표를 5만명으로 잡고 있으며 결과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는 서명운동을 시민과 기업, 기관, 단체가 함께 하는 전 시민 운동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천(경남)=손봉호 기자 metrobusan5@